

## [성주간] 성지주일 수난복음 나해(짧은 복음)

마르 15, 1 - 39



마 르코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

아 침 이 되 자 수 석 사 제 들 은 곧 바 로 원 로 들 과 율 법 학 자 들,



곧 온 최 고 의 회 와 의 논 한 끝 에, 예 수 님 을 결 박 하 여 끌 고 가 서



빌 라 도 에 게 넘 겼 다. 빌 라 도 가 예 수 님 께 물 었 다.



["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?"]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셴 다.



["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."] 그 러 자 수 석 사 제 들 이 여 러 가 지 로



예 수 님 을 고 소 하 였 다. 빌 라 도 가 다 시 예 수 님 께 물 었 다.



["당 신 은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소? 보 시 오. 저 들 이 당 신 을 갖 가



지 로 고 소 하 고 있 지 않 소?"] 예 수 님 께 서 는 더 이 상 아 무 대 답 도 하







으 로 끌 고 갔 다. 그 곳 은 총 독 관 저 였 다. 그 들 은 온 부 대



를 집 합 시 킨 다 음, 그 분 께 자 주 색 옷 을 입 히 고 가 시 관 을



워 어 머 리 에 씌 우 고 서 는, 이 렇 게 말 하 며 인 사 하 기 시 작



하 였 다. ["유 다 인 들 의 임 금 님, 만 세!"] 또 갈 대 로 그 분 의



머 리 를 때 리 고 침 을 빨 고 서 는, 무 릎 을 꿇 고 옆 드 려 예 수



님 께 절 하 였 다. 그 렇 게 예 수 님 을 조 롱 하 고 나 서 자 주



색 옷 을 벗 기 고 그 분 의 겹 옷 을 입 혔 다. 그 리 고 예 수 님 을



십 자 가 에 못 박 으 러 끌 고 나 갔 다. 그 들 은 지 나 가 는 어 떤



사 람 에 게 강 제 로 예 수 님 의 십 자 가 를 지 게 하 였 다.



그 는 키 레 네 사 람 시 몬 으 로 서 알 렉 산 드 로 스 와 루 포 스 의



아 버 지 였 는 데, 시 골 에 서 올 라 오 는 길 이 었 다. 그 들 은 예



수 님 을 골 고 타 라 는 곳 으 로 데 리 고 갔 다. 이 는 번 역 하 면



'해 골 터' 라 는 뜻 이 다. 그 들 이 몰 약 을 탄 포 도 주 를 예 수 님



께 건 냈 지 만 그 분 께 서 는 받 지 않 으 셸 다. 그 들 은 예 수



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았 다. 그 러 고 나 서 그 분 의 겉 옷 을 나



누 어 가 졌 는 데 누 가 무 엇 을 차 지 할 지 제 비 를 뽑 아 결 정



하 였 다. 그 들 이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은 때 는 아 침



아 홉 시 었 다. 그 분 의 죄 명 패 에 는 '유 다 인 들 의 임 금' 이



라 고 쓰 여 있 었 다. 그 들 은 예 수 님 과 함 께 강 도 들 을 십 자



가 에 못 박 았 는 데, 하 나 는 오 른 쪽 에 다 른 하 나 는 왼 쪽



에 못 박 았 다. 지 나 가 는 자 들 이 머 리 를 흔 들 며 그 분 을 이

(다른사람)



렇 게 모 독 하 였 다. ["저 런! 성 전 을 허 물 고 사 흘 안 에 다 시



짓 겠 다 더 니,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너 자 신 이 나 구 해 보 아 라."] ]

(해설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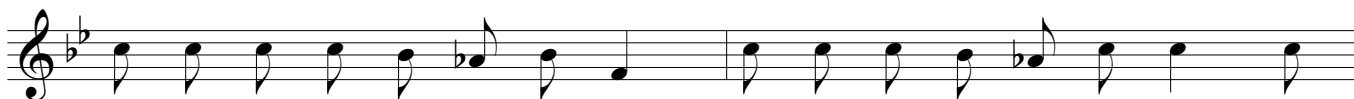


수 석 사 제 들 도 이 런 식 으 로 율 법 학 자 들 과 함 께 조 롱 하 며

(다른사람)



서 로 말 하 였 다. ["다 른 이 들 은 구 원 하 였 으 면 서 자 신 은



구 원 하 지 못 하 는 군. 우 리 가 보 고 믿 게, 이



스 라 엘 의 임 금 메 시 아 는 지 금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보 시 지."] ]



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



렸 다. 낮 열두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



까지 계속 되었다. 오후 세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



르짖으셨다. ["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 타니?"] 이는 번역



하면, ["저의 하느님, 저의 하느님, 어찌하여 저를 버리



셨습니까?"] 라는 뜻이다. 곁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이



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. ["저것 봐! 엘리야를 부르네."]



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싼 포도주에 적신 다



음,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.



["자, 엘 리 야 가 와 서 그 를 내 려 주 나 보 시 다."] 예 수 님 께



서 는 큰 소 리 를 지 르 시 고 숨 을 거 두 셧 다.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.]



그 때 에 성 전 휘 장 이 위 에 서 아 래 까 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.



그 리 고 예 수 님 을 마 주 보 고 서 있 던 백 인 대 장 이 그 분 께 서 그



렇 게 숨 을 거 두 시 는 것 을 보 고 말 하 였 다. ["참 으 로 이 사



람 은 하 느 님 의 아 드 님 이 셧 다."] ]



주 님 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리 - - 스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